

제37차 화학올림피아드 7월16일 개최

우리나라 과학 영재들이 7월16일부터 25일까지 타이완의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제37차 국제 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해 세계 영재들과 실력을 겨룬다.

대한화학회는 김병길(대구과학고 3년) 등 고교생 대표 4명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기 위해 7월13일 타이완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화학올림피아드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몇년간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 왔다.

대한화학회의 김건철 화학올림피아드 위원장(충남대 화학과 교수)은 “우리나라가 2006년 대구에서 화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하는 만큼 2005년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어나가 한국 화학도들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참가 학생들은 대회 폐막식 다음날인 7월26일 귀국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7/13>